

존 베벌리의 '극좌주의' 비판과 포스트서발턴주의(postsubalternism)

이 성 훈
서울대학교

이성훈(2018), 「존 베벌리의 '극좌주의' 비판과 포스트서발턴주의(postsubalternism)」,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9(3), 1-24.

초 록 베벌리의 지적 여정에서 2011년 출판된 『9·11 이후의 라틴아메리카니즘』(Latinamericanism after 9/11)은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핑크 타이드(Pink tide)의 등장이라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핑크 타이드의 등장으로 하위주체 연구가 가지고 있던 국가, 하위주체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은 현실 정합성을 잃었고, 이제 새로운 형식의 지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사회적 힘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새로운 정치적 수행성을 이론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적 태도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베벌리는 하위주체 계층의 사회운동이 정권에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하위주체 연구의 발전적인 극복은 국가와 하위주체의 기계적 분리를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사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국가와 하위주체의 관계, 국가의 재구성을 새롭게 사유할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이 바로 포스트서발턴주의(postsubalternism)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포스트서발턴주의에 이르기까지 베벌리의 지적 궤정을 살펴보고, 포스트서발턴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 그리고 포스트서발턴주의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존 베벌리, 핑크 타이드, 극좌주의, 포스트서발턴주의,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

I. 들어가면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념과 입장의 총체를 라틴아메리카니즘(latinamericanism)이라고 할 때, 라틴아메리카니즘을 비판하는 라틴아메리카 이론가들은 이른바 발화위치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에 '관한(sobre)'과 라틴아메리카로 '부터(desde)' 사이의 대립을 강조했다. 이런 구분에는 미국 중심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개입해 있다. 미국의 학자들이 서구 이론을 라틴아메리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현실이라는 구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학계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던 존 베벌리(John Beverley)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 사이(between)의 연대와 실천을 강조해왔다.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 그는 1970년대 이래로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고,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적'인 변화를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벌리의 지적 여정에서 2011년 출판된 『9·11 이후의 라틴아메리카니즘 *Latinamericanism after 9/11*』은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때까지 가져온 자신의 지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연구 이후 일련의 이론적 흐름 속에서 자신이 직접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하위주체 연구'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핑크 타이드(Pink tide)의 등장이라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핑크 타이드의 등장으로 하위주체 연구가 가지고 있던 국가, 하위주체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은 현실 정합성을 잃었고, 이제 새로운 형식의 지적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사회적 힘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새로운 정치적 수행성을 이론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적 태도를 재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베벌리는 『9·11 이후의 라틴아메리카니즘』에서 핑크 타이드를 이해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서구 이론틀을 추종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일방적으로 부정하지도 않는 '사이'의 공간에서 모색한다. 그는 해체주의와 포스트헤게모니 등

을 비판하고 있지만, 하위주체 연구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라틴아메리카적인 실천의 도구로 삼고자 했다. 하위주체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변화된 상황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실천의 형식들”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everley 2011, 23). 베벌리는 핑크 타이드를 9·11 이후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이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이해를 강제하던 워싱턴 컨센서스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런 새로운 정세 속에서 베벌리는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 시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적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하위주체 계층의 사회운동이 정권에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와 하위주체를 분리시키는 하위주체 연구의 기본 전제를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의 이런 입장 변화는 하위주체를 국가 외부에 위치시키던 것에서 벗어나, 하위주체가 국가가 되어 버린 일련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베벌리는 하위주체 연구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국가와 하위주체를 분리하는 시각을 극복하려 했다. 앞에서 적은 것처럼 하위주체의 요구에 기반을 둔 사회 운동이 일정 부분 권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운동 간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것이다. 하위주체가 ‘국가가 된’ 정치적 변동 속에서 국가와 하위주체 사이를 새롭게 사유할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이 바로 포스트서발턴주의(postsubalternism)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전체 7장으로 되어 있는 『9·11 이후의 라틴아메리카니즘』은 전체가 포스트서발턴주의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포스트서발턴주의가 나타나게 된 지적, 정치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가 배치되어 있다. 이 중 포스트서발턴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2장 「국가의 지속(제국에 대하여) The Persistence of the Nation(against Empire)」、3장 「해체와 라틴아메리카니즘 Deconstruction and Latinamericanism」、6장 「환멸의 패러다임을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무장투쟁 재고 Beyond the Paradigm of Disillusion:

Rethinking the Armed Struggle in Latin America」, 7장 「하위주체와 국가 The Subaltern and the State」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장에서는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multitud) 개념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포스트헤게모니 이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 3장에서는 모레이라스(Alberto Moreiras)의 해체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베벌리는 모레이라스를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에서 해체주의적 개입”이 이전 시기 좌파 기획의 좌절 혹은 패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니즘의 위기는 이러한 패배 자체가 아니라, 이 패배를 넘어서기 위한 정치적 의지 결여와 상상력의 결핍이라고 주장한다(Beverley 2011, 46). 6장에서 베벌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무장투쟁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무장투쟁에 대한 입장과 오늘날 핑크 타이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장투쟁 시기에 대한 이른바 “환멸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것이 핑크 타이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Beverley 2011, 96). 이 텍스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장에서 베벌리는 국가와 하위주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니즘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Beverley 2011, 110).

이 글에서는 『9·11 이후의 라틴아메리카니즘』의 전체 텍스트를 분석하기 보다는 포스트서발턴주의에 이르기까지 베벌리의 지적 궤정을 살펴보고, 포스트서발턴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 그리고 포스트서발턴주의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핑크 타이드 정세에 실천적으로 대응하려는 베벌리의 치열한 문제의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베벌리의 참여적 사유의 시기별 변화

베벌리가 하위주체 연구의 문제의식을 극복하고 포스트서발턴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고백”이라고 할 만큼의 그의 지적 궤적에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Dove 2014, 2). 그러나 1970년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무장혁명 투쟁에 대한 관심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지적 관심은 항상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였다. 이 변화에 따라 자신의 이론적 틀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어 왔던 것이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관심을 가져온 베벌리의 지적 궤적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변화해 왔다.

그의 지적 담론의 변화에서 무장투쟁의 좌절과 핑크 타이드의 등장은 주요한 변곡점이었다. 그는 무장투쟁이 좌절하면서 이른바 하위주체 연구를 비롯한 ‘포스트-(post-)’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핑크 타이드가 등장하면서는 하위주체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 세력의 성장에 주목했다. 또한 베벌리는 좌파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주체 중심의 사회운동 세력과 국가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좌파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위주체 사회 운동의 성과를 온전하게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운동 간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Dove 2014, 2).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서발턴주의를 주장하기 까지 베벌리의 지적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은 그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한 이론적 흐름을 고집하기 보다는 이견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학문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던 베벌리는 증언서사와 하위주체 연구 등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문화 및 문학 이론에서 진보적인 흐름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이론가들은 베벌리의 포스트서발턴주의를 비판하면서, 그가 여전히 전통적인 좌파 이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지적은 일정부분 사실이다. “무장투쟁과 혁명적 열정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로서, 이 시기의 경험이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이론적 태도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Beasley-Murray 2014, 1). 혁명적 열정으로 가득 찼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베벌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태도를 일치시키면서 현실에 참여했다. 이런 맥락에서 베벌리는 이론의 유효성은 현실 정치에서 얼마

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베벌리는 일부 좌파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현실 정치와의 ‘비판적 거리’를 현실 회피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런 참여적인 경향은 1990년대 동시대 좌파 이론가들을 “신보수주의적인 전환(Neoconservative turn)”이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¹⁾ 나아가 일부 학자들의 이론을 현실 정치와의 정합성을 상실한 “극좌주의” 혹은 “유아적인” 태도라고 비판하게 된다(Beasley-Murray 2014, 1).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운동과의 연대로 대표되는 그의 지적 여정을 크게 보아 무장투쟁시기, 신자유주의시기, 포스트신자유주의 시기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²⁾ 첫 번째는 1990년 마크 짐머만(Marc Zimmerman)과 공동으로 쓴 『중앙아메리카 혁명에서 문학과 정치 *Literature and Politics in the Central American Revolutions*』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60년대와 1970년대 중앙아메리카지역에서 전개된 민족해방 운동과 무장투쟁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시기였다(Beasley-Murray 2014, 2). 독재를 극복하고 민중들의 의지로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던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정치적 경험에 주목하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문학의 실천적 영향력을 강조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무장투쟁 노선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의 지적 궤적에 있어서 이 시기 반독재와 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는 강력한 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무장투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지식들의 “환멸의 패러다임(paradigm of disillusion)”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베벌리는 무장투쟁 시기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결점과 한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투쟁은 가장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용기 있고, 다양한 가능성들 속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Beverley 2011, 107-8). 이 시기 그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무장투쟁의 문제의식은 하위주체와 국가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포스트서발턴주의에도 이어지고 있다.

1) 신보수주의적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성훈(2009)과 김동환(2009)를 참고하십시오.

2) 세 가지 시기 구분은 Beasley-Murray의 분류를 차용했고, 무장투쟁시기, 신자유주의 시기, 포스트신자유주의라는 명칭은 필자가 붙인 것이다(Beasley-Murray 2014, 2).

두 번째는 『증언서사: 진실의 정치학 *Testimonio: On the Politics of Truth*』과 『반문학 *Against Literature*』에서 보여주었던 크리오요 엘리트 문화에 대한 비판과 하위주체의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정전으로 평가 받고 있던 붐 소설을 크리오요 엘리트들의 헤게모니 문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하위주체들의 증언 서사에 주목했다. 즉,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주변화되었고 배제되었던 하위주체와 그들의 문화적 수단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3년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그룹에 참여했다.³⁾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이 그룹의 창립선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의 파국과 혁명적 기획들의 잇단 좌절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결과이다(Beasley-Murray 2014, 2).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하위주체를 재현하려는 하위주체연구 그룹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혁명적 기획의 좌절에 대한 대안적 모색이었다. 국가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사회정치적 주체로서 하위주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들의 문화적 생산물에 주목했던 것이다. 무장투쟁을 통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좌절하면서, 지식인들이 대안적인 주체와 문화적 생산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베벌리는 이제 『반문학』에서 크리오요 엘리트들의 문화적 생산물들을 비판하고, 하위주체들의 증언서사(*Testimonio*)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증언서사를 통해서 베벌리는 무장투쟁이 아니라, 하위주체와 ‘연대의 정치’를 모색했던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9·11이후의 라틴메리카니즘』에 나타난 포스트서발턴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베벌리는 이전 단계의 하위주체 연구가 갖는 한계에 주목하고 국가 역할의 재인식, 그리고 국가와 하위주체 간 관계의 재정립을 모색했다. 하위주체연구가 하위주체를 ‘공식적인 재현의 외부와 잔여물’로 간주했다면, 이제 이른바 핑크 타이드 정세 속에서 베벌리는 ‘외부와 잔여물’을 공식적인 영역의 일부로 새롭게 사유하려는 것이다.

3) 하위주체연구 그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우석균(2015)를 참고하시오.

즉, “하위주체 연구에서 하위주체가 국가의 외부이자 어떤 의미에서 국가와 본질적으로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면(Beverley 2014, 111), 그는 이제 이러한 대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동시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이른바 신보수주의적 전환에 맞서 그리고 보다 젊은 세대의 포스트헤게모니나 다중 이론을 비판하면서 핑크 타이드 정세에 부응하는 이론을 만들고자 했다(Beasley-Murray 2014, 2). 베벌리는 이를 통해 핑크 타이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새로운 이론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베벌리의 이런 변화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무장투쟁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가 6장의 「환멸의 패러다임을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무장투쟁재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무장투쟁의 가능성을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무장투쟁에 대한 반성적 성찰들이 핑크 타이드 정부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정치적 입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베벌리는 쿠바혁명에서 시작해 산디니스타의 좌절로 끝난 라틴아메리카의 무장투쟁에 대한 대부분의 회고들은 환멸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본다. 무장투쟁에 참여했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를 표시했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오늘날 무장투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베벌리는 이들 지식인들이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무장투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간주한다(Sequín 2013, 5).

베벌리가 무장투쟁과 관련해 강조하는 것은 환멸의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용인하고 대안 모색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즉, 핑크 타이드 정부들의 변혁적 열망을 폄하하고 적절하게 해석해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베벌리는 환멸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위주체들의 시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equín 2013, 6). 결국, 이런 주장을 통해 베벌리는 새로운 사회정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기존의 하위주체 연구나 다른 탈구조주의적 이론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정치적 과정이고, 이를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고 본다.

III. 베벌리의 ‘학문적 극좌주의’ 비판

베벌리의 포스트서발턴주의는 핑크 타이드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타났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비판해왔던 이른바 신보수주의적 전환과 ‘극좌주의’에 대한 비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보수주의적 전환이라는 비판이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개념적인 틀이었다면, 극좌주의는 좌파 이론 진영 내에서 국가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포스트서발턴주의와 관련해 그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좌파 진영 내의 극좌주의 경향이었다. 그는 신자유주의 시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문제의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른바 포스트헤게모니 개념과 연결된 경향들이 학문적 극좌주의의 형태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학문적 극좌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9·11이후의 라틴아메리카니즘』에 이미 나타나 있지만, 2013년 발표된 「극좌주의: 학계의 유아적 질병 El ultraizquierdismo: Enfermedad infantil de la academia」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장에서는 「극좌주의: 학계의 유아적 질병」을 중심으로 베벌리의 비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베벌리는 소비에트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특징지어진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 진영의 시도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로 나타났고, 1990년대 이르러 탈식민주의연구, 하위주체연구, 퀴어 연구, 미디어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이론적 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 이런 이론적 시도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그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하나는 좌파 진영 내의 “이론적 혁신”이라는 관점인데, 소비에트 붕괴 이후 좌파 기획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적 대안 모색이라는 것이다. 다른 관점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지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베벌리는 이런 경향들을 현재 라틴아메리카니즘 속에서 일종의 극좌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파악한다(Beverley 2013, 1).

베벌리는 라틴아메리카 이론 진영의 극좌주의가 갖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지적 영역을 넘어 정치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이론과 정치 영역과의 관계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의 예로는 핑크 타이드의 몇몇 개념들이 라틴아메리카 연구 진영의 비판적인 성찰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다국민국가(plurinacional) 같은 개념은 탈식민적 사유에서 유래했다고 지적한다. 즉, 20세기 후반 좌파 이론 진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하위주체연구, 탈식민주의, 여성 등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다양한 사회적 운동을 만들어 냈고, 이것이 핑크 타이드라는 정치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부정적인 측면으로 핑크 타이드 정부와 이들을 지지했던 하위주체 사회 운동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들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산업, 도로건설, 광물 및 생물 자원 채굴 관련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원주민 운동 세력 사이의 대립은 일정 부분 이론 진영의 '극좌주의적'인 태도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본다. 이론 진영의 극좌주의적인 태도가 "원주민적인 것과 아프로라티노 적(lo indígeno y lo afro-latino)인 것의 탈식민적(decolonial) 요구"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활동과 이론적 성찰의 중심으로서 민중적-하위주체적인(lo popular-subalterno) 것"을 중요시하는 좌파 정부와의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Beverley 2013, 5). 특히 원주민을 비롯한 하위주체 계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있는 에콰도르의 경우에 이런 갈등이 보다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베벌리는 저명한 탈식민주의 활동가인 캐서린 월시(Catherine Walsh)의 관점을 인용하면서 극좌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월시는 에콰도르 코레아 정부의 에너지 개발 정책들이 신자유주의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코레아 정부의 '개발주의적 정책'을 반대한다. 토지와 자원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의 집단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이에 대해 베벌리는 월시가 탈식민적인 태도를 통해 원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지만, 일종의 극좌주의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원주민 집단이나 환경주의자들이 항상 옳바르고 코레아 정부가 틀렸다는 주장은 옳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하위주체 연구가 주장하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베벌리는 입장

을 달리한다. 그는 “국가는 변화를 추동하는 필요한 공간이자, 따라서 불가피한 일련의 모순들이 벌어지는 장소”로 간주한다. 따라서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 명분뿐만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를 둘러싼 다양한 원주민 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Beverley 2013, 5-6).

베벌리는 극좌주의적인 이론을 통해 핑크 타이드 정부와 원주민 운동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는 일부 이론 진영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혹은 ‘부엔 비비르(Buen vivir)’가 예수의 재림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베벌리의 진술에는 이런 비판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Beverley 2013, 6). 관념적인 이상은 현실 속에서 결코 손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완성되지 않는 평등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념적인 이상을 강조하는 태도를 베벌리는 극좌주의를 일종의 유아적 질병이라고 비판했던 레닌의 표현을 빌어 “학문적 질병(enfermedad académica)”이라고 비판하게 된다. 베벌리는 극좌주의가 “학문적 질병”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Beverley 2013, 7-8). 첫 번째는 인문학 본연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즉, 지식인들이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를 자신의 존재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극좌주의의 대표적인 한 형태로 들고 있는 해체주의의 끊임 없는 해체 작업은 “지식인들의 자연적인 이데올로기”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적인 사유를 강조하는 지식인들의 태도는 소부르조아 계층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현실 정치 속에서 하위주체와의 정치적 연대보다는 거리두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이론 자체의 “자기지시적(autorreferencial) 성격”이다. 이론은 엄밀하게 말해 “외부 책임성(responsabilidad externa)”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벌리는 사파타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2006년 멕시코 민주혁명당 후보에 대한 사파타주의자들의 지지 거부를 옹호하는 태도를 이런 외부 책임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⁴⁾ 부정선거 시비

와 근소한 차이로 집권한 칼데론(Calderón) 정부의 친미 일변도 정책과 반민중 정책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사파타주의에 대한 평가 역시 현실 정치와의 관련 보다는 “학문적”인 층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극좌주의는 현실 정치에서 직접적인 책임성을 가질 필요성이 없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연구가 학문적 대상인 라틴아메리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부성’을 들고 있다. 베벌리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은 로컬/글로벌, 주변부/중심부, 라틴아메리카로부터(desde)/에 관해(sobre) 등과 같은 발화위치에 따른 낯은 이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 출신 일부 이론가들의 극좌주의적 인 개념이 보여주듯이, 발화위치가 라틴아메리카 내부인지 외부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베벌리는 라틴아메리카를 마콘도처럼 인식하는 태도,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바로크적 본질”을 카르펜티에르처럼 해석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를 “낭만적인 숭고(lo sublime romántico)”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베벌리는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외부성’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베벌리의 입장은 라틴아메리카의 구체적인 현실에 천착하는 이론 보다는 관념적인 이상을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태도를 ‘극좌 좌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포스트서발턴주의를 주장했던 것이다.

4) 2006년 멕시코 대선은 우파 집권 국민행동당(PAN)의 펠리페 칼데론 후보와 좌파 민주혁명당(PRD) 출신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 사이의 치열한 접전이었다. 선거 결과를 두고 부정 선거 시비가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칼데론이 0.57% 차로 승리했다. 이 선거에서 사파티스타 운동 세력은 오브라도르 지지 거부를 밝히고 선거 보이콧 캠페인을 벌여왔다. 오브라도르 선거 캠프에 과거 EZLN을 탄압했던 제도혁명당(PRI) 출신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http://www.vop.co.kr/A00000048076.html>

IV. 핑크 타이드와 포스트서발턴주의의 등장

이미 지적한 것처럼 『9·11이후의 라틴아메리카니즘』에서 베벌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핑크 타이드의 등장이다. 그는 핑크 타이드를 신자유주의의 약화,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 그리고 2001년 9·11 이후 미국의 대중동 정책의 변화 등의 외부 조건 변화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이해한다(Beverley 2011, 6). 나아가 베벌리는 이렇게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좌파 정부의 출현을 바디우의 개념을 빌어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한다. 즉, 비록 예측불가능하고 혼란스럽지만 현실의 해석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다(Beverley 2011, 7).

베벌리에게 있어 이 사건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하위주체 계층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요구에 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원”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시기 무력화 되었던 국가 기능의 복원이야말로 국가 외부에 존재하던 하위주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관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Acosta 2016, 34-35). 이렇게 국가 기능의 복원과 하위주체 사회운동의 성장은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한다. 즉, 국가 외부에 존재하던 하위주체가 “국가의 일부가 된” 상황은 기존의 하위주체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분석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Beverley 2011, 9). 이런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베벌리의 실천적인 관심이 바로 포스트서발턴주의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의 핑크 타이드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등장한 좌파 기획의 복원이자,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를 향한 의미 있는 시도이다. 따라서 핑크 타이드는 좌파의 정치적 상상력과 관련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담아낼 이론적 틀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즉, 새로운 정치적 상황들을 포착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이 필요했던 것이다. 소비에트 붕괴 이전까지 쿠바 혁명과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게릴라 투쟁, 그리고 혁명 거점 이론 등이 라틴아메리카 좌파 진영의 주요한 이론적 경향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Cavooris 2014, s/n). 물론, 1973년 칠레의 경험처럼 선거를 통한 집권의 경험
이 있었지만, 20세기를 지배한 패러다임은 무장투쟁에 근간한 것이었다. 신자
유주의 시기에도 이런 무장투쟁에 대한 환멸의 패러다임이 주된 정서였고, 국
가는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원주민 운동을 비롯한 하위주체
운동이 국가가 된 상황에서, 낡은 이론적 도구와 정치적 기획들은 라틴아메리
카 현실의 역동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제 환멸의 패러다임
이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핑크 타이드의 다양한 국가 중심적인 정치적 변
화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1990년대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포스트헤게모니 이론과 하위주체성에
주목한 것도 무장투쟁의 좌절과 소비에트 붕괴에 따른 대안 모색과정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인 국가 개념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개념들은 핑크 타이
드의 등장을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베벌리의 문제의식이다. 상대
적으로 간과되었던 국가 개념 자체가 좌파의 정치적 기획과 이론적 틀에서 다
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와 하위주체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하위주체 계층이 주도하는 사회 운동들이 국가가 된 상황에서 국
가와 사회운동 사이의 관계를 사유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볼
리비아와 에콰도르처럼 원주민 운동 세력이 국가 권력에 참여한 상황에서, 국
가와 하위주체 사회운동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
이다(Cavooris 2014, s/n). 즉, 국가 기구 외부에 존재하던 하위주체가 그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고, 국가에 참여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했던 것
이다. 베벌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 하위주체 연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게
된다. 국가의 역할, 그리고 국가와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핑크 타이드의 성취와 한계, 그리고 포스트신자유주의의 가능성들을 모색했던
것이다.

이렇듯 핑크 타이드의 등장은 기존의 정치적 문법과 이론적 틀을 통해서 이
해할 수 없는 새로운 정치적 과정을 만들어냈다. 지속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변혁에 관심을 가져온 베벌리는 자연스럽게 핑크 타이드를

지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가들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핑크 타이드가 국가중심적인 기획을 통해서 “포스트자본주의 질서로서 사회주의라는 사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베벌리는 이 안에서 “사회 자체가 보다 재분배적이고, 평등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변화 가능성”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Beverly 2011, 14). 베벌리는 핑크 타이드가 갖는 의미를 하위주체 계층의 국가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여기에 그치지지는 않는다. 나아가 하위주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국가 기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데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대 국민 국가의 해체와 새로운 구성을 주장하는 것이다(Cavooris 2014, s/n).

물론 이러한 베벌리의 핑크 타이드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지지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주로 전통적인 좌파 진영은 그의 포스트서발턴주의가 계급주의적인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계급이 아니라 하위주체 계층에 중심을 둔 핑크 타이드의 사회 개혁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주민 운동 진영은 국가주의적인 정책이 원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베벌리가 사회주의적 변화를 향한 핑크 타이드의 길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베벌리가 하위주체 중심의 사회 운동들이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핑크 타이드의 어떤 정책들이 국가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핑크 타이드의 여정 속에서 이를 실현할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Castagno 2015, 251). 핑크 타이드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좌파 정권이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고 보다 민주적이고 분배적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성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런 문제제기는 핑크 타이드 정권들이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에서 새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베벌리는 핑크 타이드의 등장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른바 포스트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좌파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비에트 붕괴에 따른 전통적인 좌파 기

획들의 좌절,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가의 약화, 하위주체 계층의 불평등과 소외의 심화 등 라틴아메리카가 당면한 구조적인 위기의 해결책으로 핑크 타이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 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이론적 틀로 포스트서발턴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베벌리의 주장이다.

V. 국가와 주체의 재구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보적인 관점에서 하위주체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했던 베벌리는 핑크 타이드의 등장과 함께 포스트서발턴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베벌리의 포스트서발턴주의는 크게 보아 하위주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라는 접두어를 갖지만, 하위주체연구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운동 주체로서 하위주체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포스트서발턴주의의 특징을 국가와 주체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포스트서발턴주의는 국가에 대한 입장에서 하위주체와 다른 관점을 취한다. 파블로 카스타그노(Pablo Castagno)는 핑크 타이드에 대한 입장이 “국가주의적”인 것과 “구성주의적” 이론들 사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국가주의적인 이론들은 사회주의가 생산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호아래 자본주의 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베벌리가 “구성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말하는 입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즉각적인 변혁을 추구한다. 즉, 발전을 위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주의적인 태도와, 국가의 존속을 부르조아 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의 지속으로 보는 입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베벌리는 국가주의적인 관점을 지지하면서, 핑크 타이드 정부의 개발주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관련해 베벌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체제가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국가의 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인 것 혹은 지역적인 것의 부활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Castagno

2015, 251-252). 이렇게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서발턴주의는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좌파 이론진영 내의 ‘극좌주의적’인 태도와는 차별된다.

두 번째로 베벌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체의 문제이다. 베벌리는 국민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포스트헤게모니 이론을 극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특히 포스트헤게모니 이론에서 네그리와 하트가 글로벌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주체로 설정한 다중(multitud)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다. 네그리와 하트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제국(Imperio) 속에서 다중은 “탈국가적, 이산적, 잡종적 그리고 복합적”인 주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Beverley 2011, 27 재인용). 국민국가의 해체 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탈영토화는 기존의 국민 국가에서 요구되던 저항의 주체와는 다른 형식의 주체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베벌리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주체로서 하위주체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분산하는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 특수한 정체성을 지닌 구체적인 집단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즉, 하위주체를 다중과 달리 “종족성, 젠더, 그리고 계급의 지역, 권역, 혹은 국가적 관계들”과 관련된 특수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본다(Beverley 2011, 27 재인용). 따라서 베벌리는 하위주체가 정체성 정치를 통해 당면한 모순 구조를 변혁할 동력을 만들어내는 반면, 다중은 이런 구체적인 모순에 천착하지 못하고 추상화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가 제국에 맞서기 위해 국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중의 활동에 주목했다면, 베벌리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하위주체의 저항은 국민 국가 내부의 균열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Castagno 2015, 253).

이렇듯 주체관의 차이는 결국 제국과 국민 국가라는 국가를 바라보라는 입장 차이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네그리와 하트는 “다중이 제국(Imperio)를 통해서 글로벌 대안적 사회(sociedad global alternativa)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Acosta 2016, 35). 그러나 베벌리는 이렇게 다중을 초국적인 주체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의 소멸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

한다. 또한 다중이라는 개념은 필요조건으로 “권력과 주권의 초국적 질서로 이해되는 제국”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전제를 통해 다중과 제국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행 세계 질서를 넘어서는 어떠한 대안의 모색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Beverley 2011, 27-28). 이런 베벌리의 비판은 ‘다중’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내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처럼 지역적 특수성을 상실한 새로운 “보편적 주체”로 변할 위험성이 있다는 혐의로 이어진다(Beverley 2011, 32). 이에 반해 하위주체는 자신의 특수한 이해들을 국민 국가 내에서 정치적 기획으로 절합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핑크 타이드로 발현되었다고 본다.

베벌리는 다중을 단순히 하위주체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읽어내는 것에서 나아가 극좌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다. 비블리-머레이(Beasley-Murray)가 다중을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의를 넘어서는 “불안정한 사회적 주체”로 정의했을 때, 베벌리는 이런 입장을 좌파 이론진영 내의 일종의 극좌주의라고 비판했다(Acosta 2016, 36). 즉, 다중을 강조하는 포스트헤게모니가 하위주체 운동이 만들어낸 핑크 타이드라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하면서 관념적인 극단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좌파 극단주의 이론가들의 입장에도 ‘낭만주의적 숭고(lo sublime romántico)’라고 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주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관점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Beverley 2013, 8).

세 번째로 근대 국민국가의 재구성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주체의 재현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베벌리는 다중을 재현될 수 없는 주체로 강조하는 포스트헤게모니 이론과 달리 하위주체는 재현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하위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실현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국가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민국가는 아니다. 이른바 ‘복수국민국가’ 개념처럼 국가의 재구성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Acosta 2016, 36). 이와 관련해 베벌리는 핑크 타이드가 좌절하지 않고 진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핑크 타이드를 정당화할 “사유(idea)”를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차별적인 국가의 제도적인 형

식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Beveley 2011, 125). 이를 위해 베벌리는 하위주체 연구의 문제의식을 통해 “국가적인 것과 민주적인 것, 나아가 국가의 개념”을 새롭게 사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Beverley 2011, 111).⁵⁾

간략하게 요약하면 포스트서발턴주의를 통해 베벌리는 핑크 타이드 정세를 포스트신자유주의 체제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이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이런 국가와 국민의 재구성은 하위주체의 집단적 요구들을 수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구로, 근대적 국민국가를 극복한 “민중-국가 혹은 민중국가(a people-state, or a state of the people)” (Beveley 2011, 125)의 형성을 주장하게 된다. 이런 그의 주장은 일견 과도해 보일지라도, 근대성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실마리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I. 나가면서

지금까지 핑크 타이드 등장과 함께 베벌리의 포스트서발턴주의가 등장한 배경과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위주체 연구가 국가와 하위주체 간의 분리를 전제했다면, 포스트서발턴주의는 국가 기능의 복원과 함께 국가와 하위주체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점에서 베벌리의 입장은 일종의 국가주의적인 태도라고 평가된다. 베벌리의 국가주의적인 태도는 모레iras의 해체주의나 존 비즐리 머레이같은 학자들이 포스트헤게모니 이론들에서 국가의 역할을 간과하는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베벌리의 입장 변화는 핑크 타이드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원주민 운동을 중심으로 한 하위주체 사회운동의 지원 아래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

5) 이와 관련해 박정원은 포스트서발턴은 근대국가 형태의 해체를 목표로 권력을 ‘점유’하되 ‘소유’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통해 국가를 재구성하고자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박정원 2017, 180).

른바 포스트모던 혹은 포스트 내셔널 이론이 주장하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주도적인 정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운동이 국가 권력에 편입됨으로써 이제 하위주체와 국가의 이분법이 재검토되어야 했다. 핑크 타이드 속에서 하위주체와 국가의 이분법을 넘어 '민중 국가'라는 개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일종의 '탈하위주체화'의 순간으로 하위주체가 '국가가 된' '사건'인 것이다. 베벌리는 이 사건 속에서 좌파의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보았고, 이를 이론화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베벌리의 포스트서발턴주의의 문제의식에는 또한 좌파 극단주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해체주의나 포스트헤게모니와 같은 이론들이 라틴아메리카의 구체적인 정치적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핑크 타이드의 새로운 민주적 기획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위주체가 특정한 국민 국가 내의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순을 혁파하려는 정체성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면, 이른바 좌파 극단주의 이론들은 이런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끊임없이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핑크 타이드가 구조적 불평등과 지속적인 지배의 종식을 위해 국가 역할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면, 극좌주의 이론들에서는 국가를 구태의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벌리는 관념 속의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의 이론을 실제 사회적 과정 속에서 절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포스트서발턴주의는 국가의 재구성, 하위주체의 정체성 정치를 통한 주체화, 국가와 하위주체 간의 관계의 재정립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과정은 결국 국가와 정체성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일부 이론들을 좌파 극단주의로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극좌주의가 의도와 달리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용인하고 이를 넘어서는 대안 모색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포스트서발턴주의의 치열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핑크 타이드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핑크 타이드가 등장한 지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몇몇 핑크 타이드 정권들은 우파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물론 여전히 안정적으로 권

력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지만, 정치적 실체로서 핑크 타이드의 존속은 의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핑크 타이드 국가들의 성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의 좌파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이른바 포스트서발턴주의의 정치기획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물론 박정원의 지적처럼 핑크 타이드의 퇴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핑크 타이드를 선거라는 대의정치에 한정해서 이해하는 오류일 수 있다(박정원 2017, 195). 하위주체 중심의 사회운동 세력이 여전히 자신들의 아젠다를 통해 사회의 민주화와 국가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기의 강도를 바라보는 입장은 다르지만, 이 위기를 통해 포스트서발턴주의의 문제의식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벌리가 무장투쟁의 경험을 ‘환멸의 패러다임’에서 꺼내, 핑크 타이드라는 또 다른 변혁의 가능성으로 만들어 냈던 것처럼 말이다.

참고문헌

- 김동환(2009), 「존 베벌리와 저항의 포스트모더니즘」, 『트랜스라틴』, 8, pp. 64-71.
- 박정원(2017), 「서발턴, ‘인민’의 재구성, 그리고 21세기 라틴아메리카 포스트 신자유주의」, 『비평과 이론』, 22:3, pp. 175-202.
- 우석균(2015),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의 기원, 쟁점, 의의」, 『실천문학』, 78, pp.320-343.
- 이성훈(2009), 「학술동향: 라틴아메리카에서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 『트랜스라틴』, 5, pp. 92-98.
- Acosta, Santiago(2016), “Posthegemonia y postsubalternidad: desencuentros del latinoamericanismo frente a la marea rosada”, *Cuadernos de Literatura*, Vol. XX, núm.39, pp.28-40.
- Beasley-Murray, Jon(2013), “Prospero’s Book”, *Política común*, 4, <http://dx.doi.org/10.3998/pc.12322227.0004.006>.
- Beverley, John and Zimmerman, Marc(1990), *Literature and Politics in the*

- Central American Revolution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everly, John(1993), *Against Liter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Beverly, John(2013), “El ultraizquierdismo: enfermedad infantil de la academia”, *Alternativas*, 1, pp. 1-9.
- Beverly, John(2010), “Subalternidad/modernidad/multiculturalismo(Con una nota adicional sobre el proyecto de la ‘marea rosada’ latinoamericana)”, *Revista científica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 7, pp. 21-34.
- Campos Johnson, Adiana Michele(2013), “On Latinamericanism after 9/11”, *Política común*, 4, <http://dx.doi.org/10.3998/pc.12322227.0004.007>.
- Castagno, Pablo(2015), “Inside Latinamericanism”, *Historical Materialism*, 23:1, pp. 243-264.
- Cavooris, Robert(2014), “From Subaltern to State: Toward a Left Critique of the Pink Tide”, *Viewpoint Magazine*, Issue 4, <https://www.viewpointmag.com/2014/09/28/state-subaltern-bolivarianism-toward-a-left-critique-of-pink-tide/>.
- Dove, Patrick(2013), “Critique of Critique,” *Política común*, 4, <http://dx.doi.org/10.3998/pc.12322227.0004.008>.
- Freeland, Anne(2017), *Gramsci in Latin America: Reconstitutions of the State*, Tesis doctoral, Columbia University.
- Karen, Mary Davalos(2014), “The Lures and Snares of the Transnational”, *American Quarterly*, 66:2, pp.429-440.
- List, Jared(2012), “Sobre Latinamericanism after 9/11 por John Beverly”, *Revista Istmo: Revista virtual de estudios literarios y culturales centroamericanos*, 24, http://istmo.denison.edu/n24/resenas/04_list_jared_form.pdf.
- López, Magdalena & Garrido Castellano, Carlos(2016), “Lo incongnoscible latinoamericano: aportes y limitaciones de la crítica cultural”, *Iberoamericana*, XVI, 63, pp. 53-66.
- McClennen, Sopia A.(2011), “What’s Left for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Minnesota Review*, 76, pp. 127-140.
- Seguín, Bécquer(2013), “Posthegemony in Times of the Pink Tide”, *Postmodern Culture*, 23:2, <https://muse.jhu.edu/article/537056>.

Williams, Gareth(2016), “The Subalternist Turn in Latin American Postcolonial Studies, or, Thinking in the Wake of What Went Down Yesterday (November 8, 2016)”, *Política común*, 10, <http://dx.doi.org/10.3998/pc.1232227.0010.016>.

022

023

이 성 훈

서울대학교
anselmus@snu.ac.kr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8일

John Beverley's Criticism of Ultraizquierdism and Postsubalternism

Seong-H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eong-Hun(2018), "John Beverley's Criticism of Ultraizquierdism and Postsubalternism",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9(3), 1-24.

Abstract *Latinamericanism after 9/11*, published in 2011 during Beverley's intellectual journey, makes a significant change. These chang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changes in Latin America, so called the rise of Pink Tide. With the advent of Pink Tide, the traditional view of the state, subaltern politics and culture that had been viewed by the subaltern studies has lost its grip on reality and now needs a new form of intellectual justification. He actively interpreted the social forces driving changes in Latin America and tried to reconstruct the existing intellectual attitude to theorize about this new political performance.

Beverley argues that, in the reality that the subaltern's social movements participating in the government, a progressive overcome of the subaltern studies should begin with overcoming the mechanical separation of the state and the subaltern. He also points out that the role of the state should be newly justified. His claim that a theoretical frame for a new rethink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ubaltern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state is needed led to the postsubalternism.

In this article, I examined Beverley's intellectual trajectory to postsubalternism, and then presented the background and the main issues of postsubalternism briefly.

Key words John Beverley, Pink tide, ultraizquierdism, postsubalternism,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